

전문성 확보 자립에 도움줄 것

보각 스님, 경남 고성에 장애인 예능학교 3월 개교

3월, 장애인들에게는 봄꽃소식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장애인 예능학교(가칭)가 3월 초, 경남 고성에 문을 열기 때문이다.

경남 고성군 배문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희망촌을 운영 중인 보각 스님은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서각, 불화, 서예, 공예 등을 교육하는 장애인 예능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준비에 한창이다.

2월 말 고성장애인협회와 함께 발기인 모임을 갖고 3월 초 개강을 서두르고 있는 보각 스님은 고성 구안에 마련된 400평의 부지위에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청에 등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은 비닐하우스의 작업장을 교실로 대신하지만 강사진은 모두 준비돼 있는 상태. 또한 4-5개의 방을 마련해 4인 1실 기준으로 타지에서 오는 학생들에게는 숙식도 제공하게 된다.

1년이나 2년 과정의 장애인 예능학교는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이면 누구에게나 문이 활짝 열려있으며 연령이나 성별에도 제한은 없다. 30명의 교육생을 모집중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인들의 대학진학률이 매우 낮아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기

서각·불화·서예·공예 등 교육 20여명 숙식 위한 방도 마련 과정 이수하면 취업 알선도

회가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장애인 예능학교 설립은 장애인들의 전문성 확보와 자립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1년이나 2년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선해 주거나 스님이 운영하는 공방에 일자리를 마련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7년 전부터 장애인들을 고용해 일해 본 경험이 있고, 현재도 스님이

운영중인 한국불교예술원에서 5명의 장애인에게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어 장애인의 자립은 자립의지만 있다면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베트남 포교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베트남의 한국사람인 관음사 불사에도 열정을 쏟았던 보각 스님이 장애인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따로 있다. 스님이 호흡관리를 겪는 기관지 장애인으로 '내년 중증 장애 2급'의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스님은 기도와 정진으로 장애를 상당히 극복했고 이번 장애인 예능학교 설립도 장애인들에게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을 심어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결단을 내렸다.

보각 스님은 "장애인의 80% 이상이 성인이 되면서 교통사고나 각종 질병으로 장애를 입는 후천 장애인 만큼 언제 어떻게 장애를 입게 될지 모른다"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그들의 능력을 키워주고 자립을 돕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055)673-1480 천미희 기자

"청년 불자들 활동에 지원할 것" 대불청 부산지구 회장 이취임식



불혹의 나이를 맞이한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손정현 이하 대불청 부산지구)가 청년불교 운동의 미망을 견어내고 새 희망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2월 11일 부산 코모도호텔 총무실에서 제26대, 27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가진 대불청 부산지구는 27대 회장단 취임과 더불어 1만 청년전반단 결성과 제25차 전국불교청년대회 부산 개최 등으로 청년불교운동의 변화를 다짐하는 발원의 자리를 가졌다.

손정현 27대 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청년 불자들의 활동을 보면서 대견해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낼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며 "수행하고 실천하는 청년으로 지혜와 공덕을 두루 갖추어 부처님의 전법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천미희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부처님 가르침 애니메이션으로 ...

대불어 홈페이지 구연동화

"마을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던 아버지와 아들은 날이 저물어 괴물이 살고 있다는 빈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그곳은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야차가 살고 있었죠..."

그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야차와 재채기'라는 이 이야기를 비롯 언제든 어디서든 인터넷에만 접속하면 옛날이야기를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곳에 가면 부처님의 지혜가 가득 담긴 불경속의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난 구연동화로 들려준다.

바로 사단법인 동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지현, 이하 대불어)의 홈페이지 '구연동화'는 부처님 말씀' 코너.

대불어는 3월부터는 매월 2편의 구연동화와 찬불가를 제작해 업데이트 시키는 한편, 시디로 제작해 월간지<연꽃>과 함께, 세계 10여 개국, 그리고 전국 1만2000명의 어린이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소스를 공개해 교육기관 홈페이지, 각 사찰 홈페이지, 미니 홈페이지 등 원하는 곳에도 누구든 퍼갈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조계종 국제포교사회와 영어로 된 버



대불어 홈페이지의 '구연동화' 듣는 부처님 말씀' 코너.

전 제작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일훈 대불어 기획팀장은 "이승우 화보다 재미난 이야기들이 불경 속에 넘쳐난다"며 "불경속의 이

홈피 어린이강원에 경전 구연동화 서비스

해외 무료배포 위해 영어버전 제작 계획

페이지(www.dongryun.net).

이미 2002년 플래시 애니메이션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던 대불어가 2006년 3월부터 '구연동화로 듣는 부처님 말씀' 보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대불어 홈페이지의 어린이강원에는 7편의 구연동화와 3편의 찬불가를 제작해 놓고 있다. 이들 구연동화들은 2005년 열린 제1회 구연동화대회 수상자들과 함께 만든 것들로 '호미를 먹는 쥐' '코끼리 왕과 사나이' '동물 세 친구' '야차와 재채기' '황금 거위의 깃털' '대답하는 바위' 등 반짝이는 재치와 지혜, 게다가 감동까지 곁들여져 있다. 이 모든 동화들은 본생경, 백유경 등 경전 속 이야기들로 2500년 전, 쉬운 말씀으로 중생들의 무명을 거두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 귀를 솔깃하게 한다. 또한 좋은 벗 풍경소리와 함께 제작한 '썸머 드림 캠프', '돼지입금' 등의 찬불가도 제작해 구연동화와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아기를 동화로 들려주는 플래시 애니메이션 사업은 넘쳐나는 유해 정보 속에서, 어린이들의 심성을 맑고 밝게 길러주는 유태생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대불어가 매월 두 편의 애니메이션과 찬불가를 제작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연간 1300만원에서 1500만원. 포교원에서 지원받는 연 400만 원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녹음비용 절감을 위해 구연은 구연동화대회 수상자들의 모인인 불교구연동화회 회원들이 도맡고 있는 것지만 보다 나은 음질과 다양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재원 확보에 고민이 많다.

정 팀장은 "방대한 불교경전이 결코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다"며 "구연동화나 찬불가로 쉽고 재미있게 불교를 알리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인터넷 공간에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864-4569 천미희 기자

부산 선암사, 대주민 봉사 펼쳐

인근 25개동 불우이웃에 쌀·생활비 전달

장례식장 건립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오랜 갈등을 빚어왔던 부산 선암사(주지 원범)가 신임 주지 원범 스님 취임이후 갈등을 말끔히 해소하고 주민들을 찾아 나섰다.

선암사는 선암사가 위치한 부산진구 관내 25개동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세대들 각 동마다 5세대씩 선정, 매월 2개동 10세대를 차례로 방문하기로 했다.

첫 방문지로 부담등을 선정된 선암사는 2월 16일 부담동 내 5세대를 방문, 각 가구마다 20kg 쌀 한 포대와 20만원의 생활비

를 전달했다.

특히 선암사 총무 지범 스님과 원효봉사회 회원들은 가정을 방문, 청소가 필요하다면 청소를 해주고 전기 제품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리를 해 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선암사는 매월 2개동씩 차례로 방문하고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파악하는 한편 원효봉사회를 10개 팀으로 나눠 청소, 밀반찬 등 대사회적 봉사활동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감로사의 '특별한 천도재'

생명공학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 영혼 위로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는 2월 12일 생명과학 연구 과정에서 희생된 영가들을 위한 특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정초 7일기도 회향과 더불어 봉행된 천도재는 정초기도 회향일과 정월 대보름이 겹쳐 1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성료됐다.

이날의 천도재는 최근 황우석 박사 연구 재개와 관련 특허권 사수라는 국민적 관심 속에서 간과되고 있는 생명공학 연구 과정에서 희생된 영혼들을 위로하고 천도하는 의식으로 연속하게

진행됐다. 이 같은 천도재는 생명공학 연구가 대다수 국민들의 무명장수와 안락을 위한 연구만큼 실험 과정에서 연구과정에서 희생된 쥐, 개, 돼지, 소 등의 영혼을 달래고 위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은 "실험에 희생된 동물들이 억울하게 죽어 결국은 원인이 되어 구원을 떠돌게 되므로 우리 모두는 이 원혼들을 달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황우석 지지 부산시민연대 촛불제



'황우석을 사랑하는 부산 시민연대'는 2월 11일 부산역 광장에서 '황우석 진실규명 연구재단 범불교연합회', '황우석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연합' 등과 연대해 황우석 박사 연구재개를 위한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오후 6시경 부산역 광장에 모인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은 황 박사의 연구재개를 지지했으며 즐기세포 관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며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은아 기자

청소년 심성개발 위해

명상 프로그램 활용방안 검토

부산 교육계가 청소년들의 심성 개발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명상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 교육청이 2월 23일 오후 2시 롯데호텔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주5일제 토요일 수업 세미나'에서 부산 유곡선원의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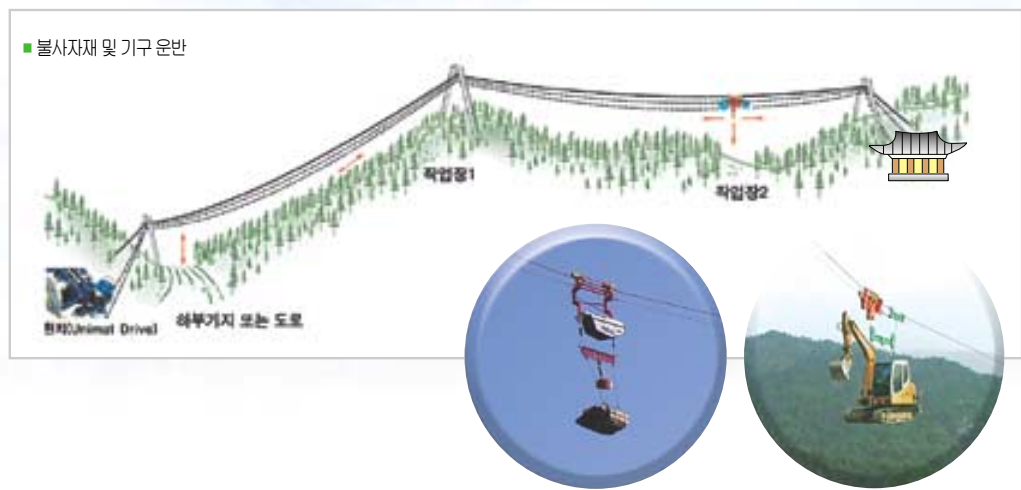
곡심성개발교육원의 김혜경 교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김교장은 주5일제 수업 시행 초창기부터 청소년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 꾸준히 실시해오며 호응을 얻어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교장은 명상 사례 발표를 통해 주5일제 수업의 효과와 지향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및 주5일제 수업 담당교사 250여 명, 토요일 수업 시행기관 관계자 200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깊은 산속, 사찰 불사 운송비 걱정 끝!

자연 훼손 없이 자재, 작업기구 운송 - 기존 운송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도로가 없는 험준한 산악, 다리가 없는 강 건너 등 운송비용 부담으로 불사를 하지 못했던 사찰에 자연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도 불사 자재, 기구등을 안전하게 운반합니다.



- 생산성 : 최고의 운반속도(10m/sec), 최고의 운반중량(6톤/회), 신속한 설치, 해체(설치 3주 이내, 해체 10일 이내), 연속운전 가능
- 안전성 : 완벽한 브레이크시스템(3중 시스템), 간편한 조작기능, 정밀한 운전, 단순한 설치, 80년 이상의 사용실적
- 범용성 : 산악, 험준한 지형등 지형여건에 구애받지 않음, 대규모 사찰 신속 및 개축 불사
- 환경보호 : 어느 지형조건에서도 최적 설치(환경훼손 최소화), 지형에 적합한 설치로 산림보호 최우선, 민원을 유발하지 않는 설치

아직도, 사찰 필수품을 등짐으로 운반하십니까?

사찰에서 항상 사용하는 물품을 한번 설치로 언제든 영구적으로 자동 운송합니다

도로로 운반하던 사찰 필수품(생활용품, 난방연료, 스님 용품 등)을 한번설치한 기구로 언제든 필요한 만큼 자동으로 사찰까지 운반합니다. 자연훼손 및 민원 없이 설치 가능하며 수일내 설치하여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대상 : 도로가 없어 도로로 물품을 운반하는 산속 사찰
- 용도 : 사찰 필수품 등 1회 200, 400, 500kg이상의 경량물 자동 운송
- 특징 : 운송장비 자체의 구동장치에 의한 이동, 한번 설치로 영구사용, 간단한 설치 및 해체 가능, 수일내 설치가능

스위스 워렌정비 80년 노하우로 한성에스티가 모든 안전 및 책임을 보증합니다. 문의주시면 성실성공의 안내하여 드리며, 불사관련 견적을 바로 알려드립니다